王씨 위해 李씨가 세웠지만 결국 李씨를 위함이었네

고려와 조선 두 왕조를 위로한 진관사

조선 건국기에 민심 수습을 위해 설행된 수륙재는 진관사에서 매년 왕실 의례로 봉행됐다.

서울에 절의 이름을 따서 생겨난 마을이 더러 있지만 진관사와 진관내동과 진관외동처럼 사찰과 마을이 현존하는 곳은 흔치않다. 절의 이름으로 마을이 생길 정도로 영향력을 준 진관사는 고려 제8대 현종의 기구한 생애와 관련이 있는 창건설화가 있을 정도로 연원이 깊다.

그런 진관사는 조선 시대 창건된 사찰이 아니면서 조선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것은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사후세계를 위로한 사찰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고려왕조를 위한 것은 희생된 왕족과 신하들을 위무하는 수륙재였고, 조선 왕조를 위한 것은 왕과 왕후의 천도와 기신재의 대표적인 장소였다.

왕조와 왕조의 교체에는 불가피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역시 고려의 왕족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위화도 회군으로 잠시 왕위에 오른 공양왕은 제대로 된 임금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불안한 자신의 위치 때문에 오히려 불사에 치우친 생활을 했다. 조선이 세워지자 유배가고, 급기야는 도망해서 삼척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불행한 생애 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능은 삼척과 고양 두 곳에 있다. 죽어서도 자신의 자리가 나누어지는 불행한 임금이었다.

다음으로 피해를 본 것은 왕(王)씨 성을 가진 왕족이었다. 한두 명이 아닌 탓으로 감시하기 어려웠던지 태조 이성계는 즉위한지 3일 만에 사헌부의 주청으로 왕씨 일족을 강화도와 거제도 두 섬으로 내몰고 살해했다. 이때 화를 면한 왕씨들은 전(全)씨나 전(田)씨로 성을 바꿔 목숨을 이어갔다.

다음은 전 왕조에서 벼슬을 하던 관리들의 희생이 많았다. 고려와 조선처럼 전제군주시대는 충효가 강조된 탓인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신념이 강했다. 그런 까닭에 새 왕조의 건국에 동참할 것을 권유해도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사람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새 왕조의 건국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개성 광덕산에 있는 두문동에 들어간 72명을 회유하기 위해 불을 질렀지만 끝내 나오지 않고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일이다. 그런 고려 때의 신하 가운데는 조선왕조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태조 3년(1394) 모반하는 무리들이 있어 신하들의 주청에 의해 그들을 처벌한 것을 보면 건국초기 어수선한 현실이 눈에 떠오른다.

이런 분위를 지켜본 민심은 어떠했을까? 왕조 교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고려 왕족과 신하의 처벌은 잔혹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힘을 가진 조선왕조에 저항할 수는 없어도 희생되는 고려의 왕족과 관리에게 연민의 정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슴 저 밑으로 조선왕조의 폭정을 담아뒀을 것이다.

이런 민심을 달래는 것이 조선왕조의 숙제였다. 무엇으로 달래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고려왕조처럼 불교를 숭상하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새로운 지배계층은 유교를 치국이념으로 삼았다. 불교계를 압박하기 위해 사원의 구재행위를 금지했으며, 새로운 도읍 건설과 종묘의 조영에 승려들을 강제로 투입했다. 승려들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농민투입에 따른 농사의 어려움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렇게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썼던 조선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불교를 내세울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유교의 내세관으로 죽은 망자를 위로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결국 불교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설행된 수륙재는 고려 왕족과 신하들을 천도하는 의미와 함께 민심 수습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었다. 물과 뭍에서 희생된 무주고혼을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새 왕조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 한 것이다.

조선시대 수륙재가 처음 설행된 때는 태조 4년(1395)이었다. 그해 2월 천마산 관음굴(觀音窟)과 삼척에 있는 삼화사(三和寺) 그리고 거제에 있는 견암사(見巖寺)에서 수륙재를 베풀었다. 이후 봄과 가을 이곳에서 수륙재를 베푸는 것을 법식으로 삼았다. 이곳에서 수륙재가 먼저 설행된 것은 왕족의 희생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은 도성과 먼 곳이어서 민심을 달래기는 부족했다. 전 왕조의 희생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새로운 조선왕조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면 두 왕족의 핵심인 한양과 개경 주변에서 열려야 했다. 그런 목적에서 보면 한양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진관사가 제격이었을 것이다. 고려왕조와 관련이 있으면서 신왕조의 수도와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의도로 태조 7년(1398) 진관사에 수륙사(水陸社)를 조성하고 전 왕조를 위해 수륙재 설하면서 이곳은 왕실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민심 지지 얻으려 수륙재 거행 시작
유교를 앞세웠어도 불교 등지지 못해

이후 수륙재는 조선의 중요한 불교의례로 정착되었고, 왕실에서도 배불의 분위기와 달리 수륙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조선 초 배불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태종 역시 그런 신앙을 충실히 따랐다. 즉위 1년 봄과 가을에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개최한 후 즉위 14년(1413)에 이르면 지금까지 세 곳에서 거행되던 수륙재에다 오대산 상원사를 추가했다. 그리고 왕명으로 매년 2월 15일에 행하던 것을 금후로는 정월 15일에 개최하도록 했다.

태종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수륙재를 통해 극복하려 했다. 18년(1418) 넷째 아들 성년대군이 죽자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베풀고 흐느껴 울면서 명복을 빌었다. 강인한 군주였지만 자식문제에 있어서는 여느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진관사의 수륙재는 세종 31년(1449) 4월 영국사(寧國寺)로 옮기려고 심각하게 논의한 일이 했다. 그 이유는 진관사의 샘물이 불결하고 또 땅이 좁다는 이유였다. 수륙사를 포함하여 사찰 전체를 수리하려면 많은 재목과 기와를 운반하여야 하는데 도로가 좁고 험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영국사는 지세가 매우 시원하고 정결하며 물이 또한 맑고 깨끗하다는 이유였다.

이런 논의에서 예조판서 허후는 태조가 설치한 것이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 의견에 세종은 처음부터 조선왕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려왕조를 위한 것이므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불교계의 고승과 협의하라 했다. 5월에 다시 중신들과 논의하여 영국사로 옮기는 것보다 진관사를 수리하는 쪽으로 정했다. 뒤이어 즉위한 문종 1년(1451) 5월 비로소 진관사의 수륙사가 완성되었다. 그해 7월에는 의정부에서 예조에 아뢰어 한양으로부터 진관 수륙사까지 향을 받들고 경행(經行)하는 길에 혹 버려진 주검이 있으면 매우 불편하므로 한성부의 담당관이 자세히 살피도록 했다. 아울러 진관사 마을 입구 좌우에 사람을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길을 깨끗하게 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세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민중들의 생활에 자리한 불교신앙을 하루아침에 없애기 어려웠다. 건국을 이끈 태조와 태종 역시 고려시대 불교를 숭상하던 분위기에서 지내왔다. 이런 까닭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국가의 위난을 불교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잠재의식이 있었다. 특히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유교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불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종묘를 지어 태조의 선대는 물론 이후 유명을 달리하는 왕과 왕후를 제사 지냈지만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은 불교를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해지는 기록을 보면 태종 정종 태종 세조와 그의 장남, 그리고 성종의 49재를 진관사에서 지냈다. 또한 조선 초 많은 왕비의 49재 역시 이곳에서 지냈고, 그들의 기신재 역시 이곳에서 지내졌다. 그 후 연산군 때까지 수륙재가 설행할 때 선대의 왕과 왕후를 위해 위계가 높은 조관을 보내 향축(香祝)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 동안 이곳은 조선 왕족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 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활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